



이음, 제주



주 민 을 잇고 동 네 를 잇다

TRACK. 12

Special Theme

원도심과 꿈을 잇다

다시, 보다

로컬과 스타트업의 시대

다시, 듣다

도시재생, 청년 스타트업과 함께하다

다시, 생각하다

원도심의 재생과 순환,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



CONTENTS

4

다시, 보다
로컬과 스타트업의 시대

6

다시, 듣다
도시재생, 청년 스타트업과 함께하다

8

인터뷰
호스텔의 진화, 베드라디오

10

다시, 생각하다
원도심의 재생과 순환,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

12

2019 도시재생주요사업
오늘보다 더 나은 제주를 만든다

15

디자인공장
디자인으로 꿈꾸는 원도심의 미래

16

주민참여 디자인 워크숍
참여하고, 상상하고, 디자인 해 보다!

18

도시재생 아카데미
도시의 미래 삶에 대해 묻다

19

도시재생대학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의 가능성

20

정기총회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제주에서 뭉쳤다

21

합동설명회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균형발전...
공동체 지원사업 한 눈에

22

NEWS

제주·대전 도시재생전문가, 원도심 활성화 위해 뭉치다
제주 공동체 지원 중간지원조직 어벤저스, 시너지효과 기대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



원도심과

꿈을 잇다

스타트업 창업이 늘어나고 업무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되면서 공유 오피스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에도 제주지방기상청 구청사를 활용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다시, 보다 | 로컬과 스타트업의 시대

다시, 들다 | 도시재생, 청년 스타트업과 함께하다

다시, 생각하다 | 원도심의 재생과 순환,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

로컬과 스타트업의 시대

로컬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도시재생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유럽 스타트업의 중심인
독일 팩토리 베를린과
주거와 공유오피스를 결합한
국내 ‘코워킹&코리빙’ 기업인
로컬스티치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자.

1
2
3
4

1 팩토리 베를린은 옛 도심
지역인 베르나우어 거리의
낡은 공장을 개조해 만든
벤처 창업 단지다.

2 로컬스티치 연남 외관.
오래된 건물의 독특한
구조를 살렸다.

3 로컬스티치 연남은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이
함께 있다.

4 로컬스티치 성산은 다양한
창작활동이 가능하다.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트업의 도시,
팩토리 베를린

베를린은 세계에서 핫한 도시로 손꼽힌다. 독일 정치의 수도지만 동서독 통합 이후 별다른 산업, 경제 기반이 없었던 베를린이 핫한 도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젊은 예술가들과 스타트업의 결합 때문이다.

베를린은 낡은 공장과 노후화된 주택 등으로 잿빛 도시였다. 하지만 저렴한 집값과 물가를 찾아 전 세계 젊은 예술가와 스타트업 회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 결과 유럽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 도시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팩토리 베를린이 있다.

팩토리 베를린은 옛 도심 지역인 베르나우어 거리의 낡은 공장을 개조해 만든 벤처 창업 단지다. 이곳에서는 프리랜서와 창업가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준 높은 창업 교육과 관련 설명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27개로, 이들 가운데는 우버, 사운드 클라우드 등 세계적인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만큼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1, 2층에 마련된 코워킹 스페이스에는 예비 창업자들과 프리랜서들이 어우러져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 더불어, 팩토리 베를린 덕분에 베를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인근 지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 팩토리 베를린은 단순히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을 넘어 네트워크 구축과 수준 높은 강의, 설명회 등을 제공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

동네를 연결하다,
로컬스티치

로컬스티치는 사무와 주거 기능이 가능한 코워킹&코리빙(Co-working&Co-living) 공간이다. 2013년 서교동의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동네 호텔로 시작한 로컬스티치는 처음엔 여행객들에게 숙박만 제공했다. 일반적인 호텔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을 모두 제공하기 어려워 동네 카페, 동네 세탁소 등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런 시스템은 호텔이 위치한 동네를 좀 더 살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외국 여행객들과 국내 젊은 층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곳을 찾는 이용자들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글로벌 노마드, 예비 창업자 등으로 서로 일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

로컬스티치는 4월 오픈 예정인 소공로점을 포함 총 8개 지점, 100개의 독립실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동네의 특성과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공유공간으로 구성, 로컬스티치 멤버들이 '동네와 동네' 사이를 오가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로컬스티치는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입주민들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례로 유명 요리사가 성산점에 입주해 주방을 빌리는 대신 6개월 동안 멤버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단돈 2천 원으로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요리를 제공한 것이다. 로컬스티치는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팩토리 베를린과 로컬스티치는 스타트업의 성장, 성공한 도시재생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입주자들의 가치 향상을 위해 강연, 워크숍, 소규모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국토교통부 [혁신공간 해외사례] 포드지리



로컬스타터 홈페이지



로컬스타터 홈페이지



로컬스타터 홈페이지



도시재생, 청년 스타트업과 함께하다

청년 스타트업이 도시재생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 스타트업들 역시 도시가 가진 문제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현재의 문제들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뤄내고 있다.



원도심으로 모이는 청년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은 대부분 자본금이 적은 상태로 시작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도심권 내 사무 공간을 얻을 수 있는 원도심에 터를 잡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도심의 경우 노후 건물이 대부분이고 건물 소유주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건물 관리가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입주를 위해 리모델링을 원해도 너무 오래 비어있어 주인을 찾기 힘들거나 도외에 거주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 원도심에 터를 잡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왜일까? 단지 낮은 임대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원도심은 오래된 골목길, 상점, 저층 건물 등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정취가 있다. 과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압축하고 있는 공간으로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임은 틀림없다. 이뿐만 아니라 원도심은 지리적으로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인프라를 비롯해 주요 기관 및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에도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환경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업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밥집, 카페, 슈퍼마켓 등 소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내 구성원으로 원도심의 경제 활동에 참여, 지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청년 스타트업과 도시재생의 만남

미래세대라고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다. 이 세대의 큰 특징은 사회적 가치 추구를 제주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만나면 지역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창업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미래의 아이들과 청년 창업을 위해 공유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칠성통 입구의 건물 일부를 젊은이들의 창업 공간으로 제공한 '디자인공장'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으로 진행중인 제주지방기상청 구청사를 활용한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W360은 청년창업, 소셜벤처 등을 IT, 콘텐츠, 지역재생 분야에 특화해 지역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나 산업에 따른 변화가 적용되기 어려웠던 제주에 IT, 관광, 콘텐츠 등의 스타트업 활동은 원도심 지역 구성원에게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도시재생 측면에서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교육, 안전, 환경 등 여러 방면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과 어우러져 대안을 모색할 기회가 될 것이다. 센터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도시재생 분야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 청년들이 더 나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칠성통 입구의 건물 일부를 젊은이들의 창업 공간으로 제공한 '디자인공장'과 제주지방기상청 구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소셜벤처 등 지역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복합공간인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호스텔의 진화, 베드라디오

밀레니얼 세대는 소유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여행 역시
동네 골목을 탐험하거나
거리 음식을 즐기는 걸
좋아한다. 숙소 역시 잠만
자는 곳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놀이터다.
새 시대의 여행자들을 위한
호스텔이 제주에 문을
열었다.
바로 베드라디오다.
베드라디오 김지운 대표와
나는 일문일답.

Q 〈베드라디오〉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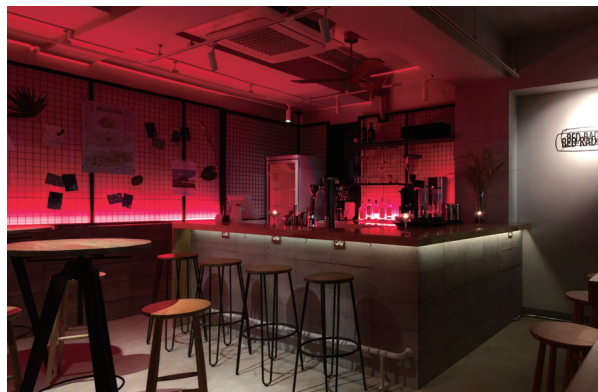
베드라디오는 하이브리드 호스텔을 콘셉트
로한 숙박 시설이다. 일반 호스텔이나 호텔과
달리 도미토리부터 더블, 트윈, 패밀리룸 등
다양한 객실 타입과 수영장, 피트니스 공간
등의 부대시설, 액티비티 등의 로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Q 로컬 프로그램들이 궁금하다. 기획하
게 된 계기와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호스텔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여행자들을 만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이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을 생각하다 로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로컬, 소
설, 액티비티다. 자전거 렌탈 숍과 연계해 렌
터카 없이도 자전거로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
도록 하거나 제주항을 바라보며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 등이 있다. 이외
에도 오름투어, 러닝, 서핑 등 기존에 운영되
고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진행하기도 한다.

Q 1층 라운지는 투숙객과 비투숙객 모
두 이용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이다.
이 공간의 기능이 궁금하다.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라고 생각한다. 호텔과 비교해 다소 불편해도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이유도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재미있는 파티가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설
들이 무분별하게 생기자 보니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했다. 베드라디오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안전성이 보
장된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 공
간이 바로 1층 라운지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잘 파악한 공간
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과 좋은 음악 등
파티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베드라디오 홈페이지

Q 새로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나?
베드라디오 2호점 옥림여관이 올해 10월 오픈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3호점 역시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제주에 오픈할 계획이다. 제주 외에도 서울, 강원, 부산 등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한 후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Q 제주 원도심의 유휴공간인 옥림여관을 리모델해 오픈할 베드라디오 2호점도 기대된다. 베드라디오가 추구하는 가치와 도시재생이 연결된 느낌이다.
저희는 입지를 선정을 할 때 도보 15분 반경 안에 여행자가 즐길 수 있는 로컬 문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공간 및 내부 콘텐츠를 기획 할 때도 지역에 존재하는 흐름을 발견하고 고객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할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Q 제주에서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시재생센터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 투자금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Q 베드라디오가 추구하는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2030 세대 여행자들인 밀레니얼 세대들이 열광할 수 있는 호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다. 어느 지역을 가도 베드라디오를 이용한다면 편안하고 안전한 숙박 공간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싶다. 굿즈, 어메니티 등도 기획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모여 베드라디오만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다.

호텔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여행자들을 만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이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로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베드라디오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안전성이 보장된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원도심의 재생과 순환,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

제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제주 스타트업
문화를 키워 나가기
위해 옛 제주기상청을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으로 새롭게
조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탄생할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을 미리 만나보자.

제주기상청 구청사가 청년창업과 신생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새롭게 탄생한다. 지상 2층, 연면적 959㎡ 규모의 구청사는 공신정(拱辰亭) 터로 조선시대 제주성 내 최고 인문 경관지로 지난 90여 년 동안 제주 기후를 관측한 거점이라는 점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곳에 조성되는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은 원도심의 장소성을 살린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 공간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 창업자, 소셜벤처 등의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실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창업 컨설팅, 주민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주 안팎에서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들의 접점 역할을 해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Space와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

History 제주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북극성을 바라보며 세운을 기원하던 공신정. 그 공신정 터에 위치한 Space W360은 제주 스타트업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그들과 함께 제주와 연결된 세상 곳곳을 바라봅니다.

Vision 새로운 바람이 불다

제주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의 시작과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제주의 스타트업 문화를 키워 나갑니다.

People 사람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다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사무실이 아닌, 각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제주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 더 나은 삶을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각자의 꿈을 키워 나갑니다.

Synergy 원도심으로 이어지다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원도심의 재생과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원도심과 제주를 둘러싼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어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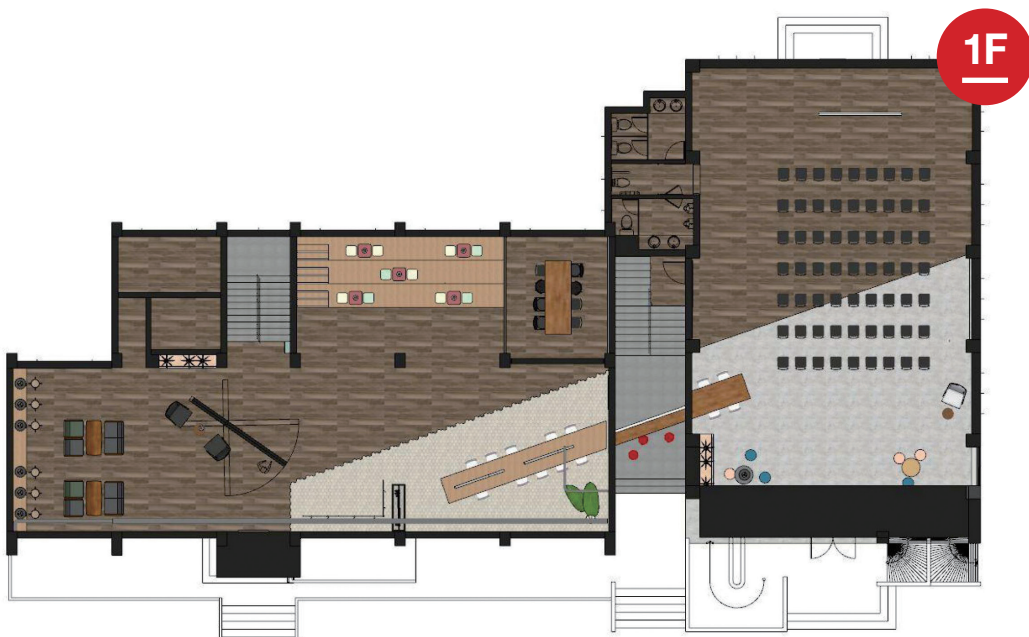
Culture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다

입주기업들은 자긍심을 갖고 두려움 없이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통해 제주 스타트업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W360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9길 13-1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

제주와 연결된 세상을 바라보는 곳_Watch

제주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_Wind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_Wish



오늘보다 더 나은 제주를 만든다

원도심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2019년 주요사업을 미리 만나보자.

주민소통

주민조직 발굴 지원

사업기간 2019년 3~6월(뉴딜사업 신청기간 중)
신청대상 제주내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예정지
지원내용 2개월간 주민조직 발굴에 따른 주민교육 및 회의(회의비) 지원 → (예비)주민협의체 설립 후, 주민지원사업 수행

제주시 원도심 주민공모사업 · 제주도 도시재생 소규모 공모사업

공고기간 2018년 4~5월 중
사업기간 협약체결 ~ 2019년 11월 30일 까지
신청대상 제주시 원도심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모임(5인 이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모임(5인 이상)
지원규모 1팀당 최대 500만 원 3팀(제주시 원도심), 3팀(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평가위원 심사 → 필수교육 이수 → 선정 및 협약

주민발언회 <공감마이크 오브>

사업기간 2019년 4~11월
사업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뉴딜사업 신청 예정지
사업목적 도시재생 이슈에 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안 논의로 주민공감대 사전 형성
사업내용 주민발언회 기획 및 운영, 통합 보고서 제작

교육사업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제주시 · 서귀포시)

교육대상 제주시 · 서귀포시 시민 누구나
교육일정 제주시(상반기 3~4월), 서귀포시(하반기 8~9월)
교육내용 도시재생 뉴딜 인지도 확산을 위한 교양수준의 특강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공통이론과정 · 문제해결과정)

교육대상 주민 · 활동가(뉴딜사업 예정지 주민 우선)
교육일정 공통이론(3~4월), 문제해결(4월), 특화과정(5~11월)
교육내용 공통이론(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의 이해), 문제해결(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특화과정(도시재생 사업주체별 맞춤교육)

도민 디자인 교실 운영

교육대상 내 집 꾸미기에 관심있는 누구나
교육일정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교육시간 총 5강
교육횟수 2회
교육내용 디자인교실 수요에 따라 실습 위주의 강의(기초, 심화과정), 특정 프로그램 심화과정 추진 예정



주체역량강화사업

전국 도시재생 실무단 현장포럼

사업기간 2019년 5~6월
사업대상 전국 광역·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및 활동가
사업목적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별 뉴딜사업 현안 공유 및 협업 논의

도시재생 활동가 통합 워크숍

사업기간 2019년 8~9월
사업대상 도시재생대학 수료자 및 활동가
사업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슈사항 및 지원정책 공유

도시재생 사람책 도서관

사업대상 도시재생 활동가 및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참여주체
사업기간 2019년 4~11월(총 10회)
사업내용 도시재생 참여주체들이 필요한 강연 및 자문(멘토링)등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2019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

운영기간 2019년 6월 27~30일(3박 4일)
운영대상 건물주, 상인, 예비창업자, 주민, 지역혁신가 등
사업목적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참가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변화를 실천하는 방법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진행방법 강연, 참가자 토론, 워크숍, 네트워크 등

디자인 커뮤니티 워크숍

사업명 탐라문화광장 주변 공간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디자인 워크숍'
사업기간 2019년 1월 22일~3월 4일
운영일정 4회(회당 4시간) 진행
운영대상 지역주민 및 참여 신청자(주민우선 참여)
사업목적 탐라문화광장 산지천 조형물 철거 이후 공간활용에 대한 논의, 사용자(주민) 직접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경험(디자인씽킹) 제공 및 공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마련
진행방법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진행(공감하기 → 문제정의하기&아이디어 내기 → 프로토타입 만들기&시험하기 → 최종 산출물 발표)

연구·조사

도시재생 연구 및 대외협력체계 구축

사업기간 2019년 3~9월
사업목적 도시재생 사업 주요 사례 분석 및 사업별 모니터링 지표 연구
주요내용 제주-대전 간 협업사례 발굴 및 원도심 활성화 공동사업 검토

노포·빈집 실태조사

사업기간 2019년 하반기
사업목적 도시재생 관련 기초조사 및 근대 건축물의 조사를 통해 제주형 도시재생 추진기반 마련
주요내용 노포 및 빈집 실태조사, 활용방안 구축

네트워킹·행사

제주공동체지원사업 합동설명회

사업기간 2019년 2월 25일
사업대상 제주지역 공동체 관련 조직 및 주민 200여 명
사업내용 도시재생-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균형발전 관련 지원사업 안내

2019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정기총회

사업기간 2019년 2월 22일
사업대상 전국 도시생지원센터 임직원 200여명
사업내용 제주시 원도심 답사 및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정기총회 진행

2019 순천 도시재생 한마당

사업기간 2019년 10월 중
주최·주관 국토부, 순천시
사업대상 전국 도시재생지원조직 및 주민
사업내용 지자체 사업 홍보,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

2019 도시재생 한마음 페스티벌

사업기간 2019년 연말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대상 제주 도시재생 관련 주민 및 조직
사업내용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 네트워킹 등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사랑방

사업목적 제주시 원도심 역사문화거점 조성

위 치 제주시 관덕로 17길 27-1

규 모 건물 2동 / 109.08 m²

사업내용 제주사랑방 사전프로그램 운영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주책방)

디자인공장

위 치 제주시 칠성로길8 지하 1층, 지상 3층/ 415.96 m²

모집대상 학생, 창업, 이직,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인,
창업신생기업 등

모집분야 건축, 시각, 제품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이너 및
컨텐츠 창작자

사업목적 현장 중심의 디자인 연구 및 테스트 가능한
디자인 Lab을 조성하여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 및
졸업자들의 디자인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소로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양성하여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내
디자인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

사업내용 디자인공장 멤버십 운영

상생마당

사업기간 2018년 5월 ~ 현재 진행 중

위 치 제주시 칠성로길1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13m²

사업목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복합화한
앵커시설 필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접근 용이,
주민참여 거점공간 역할 수행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정보센터, 주민교육, 주민사업 등
공동체 회복 공간

교육환경 개선사업

사 업 명 제주북초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화 사업

사업기간 2017년 4월~2019년 5월

사업위치 제주시 삼도2동 17-3

사업규모 건물 3동/ 365.03 m²

사업내용 마을도서관 및 아이 돌봄 공간 조성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

창업 및 성장지원 인프라 조성

사 업 명 제주 원도심 혁신창업거점 W360

사업기간 2017년 6월~2019년 7월

위 치 제주시 동문로 9길 13-1

규 모 지상 2층/ 959 m²

사업내용 원도심의 장소성을 살린 소셜벤처 등 스타트업의 창업 및
프로젝트 공간 조성 및 지역혁신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공모 지원

사업기간 2019년 1~8월

사업내용 서귀포시 원도심(공공기관 제안 · 일반근린형),
건입동(일반근린형), 사계리(우리동네 살리기)





디자인으로 꿈꾸는 원도심의 미래

침체된 칠성동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다. 예비 디자이너, 창업자를 위한 새로운 공간, 디자인공장이 새롭게 오픈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여든 청년들의 아지트, 디자인공장을 들여다 보자.

제주시 원도심 유휴공간이 디자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칠성동 입구에 있는 건물(칠성로길 8)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임대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디자인랩으로 리모델링했다. 디자인공장은 젊은이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되며, 디자이너와 창작자들의 주체가 되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하 1층은 워크플랫폼으로 공동작업공간, 개인작업공간, 휴게실 등으로 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으로 만들었고, 지상 3층은 밴드플랫폼으로 사무공간, 아이디어 회의실, 휴게실, 서고 등 멤버 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디자인공장은 원도심 활성화에 디자인지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디자인공장 멤버 모집공모 결과 6팀이 선정되어 현재 협

약을 추진하는 중이다. 첫 번째 디자인공장 멤버십 협약멤버들과 3~6개월 운영 후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멤버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화 컨설팅, 커뮤니티 활동 지원, 도시재생 사업 연계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다른 지원 센터와 다른점
인큐베이팅
창업지원 < 협업프로젝트
커뮤니티



참여하고, 상상하고, 디자인 해 보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라문화광장 주민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된 디자인 워크숍 현장을 소개한다.



2018년 12월 탐라문화광장 산지천의 조형물이 철거 논란과 함께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휩싸였다. 산지천 조형물은 당초 탐라문화 광장 내 기존 바닥분수 철거에 따라 지난 2016년 사람들에게 휴식 및 만남의 공간 제공, 산지천 정보 전달, 포토존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형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탐라문화광장의 장소성과 활용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과 설치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구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주취·소란 행위를 일삼는 거점장소로 전락하면서 이용 장애, 상가 영업 지장 등을 초래하여 일도동 주민들이 제주의의회에 조형물 철거를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12월 24일 '탐라문화광장 산지천 조형물 철거 청원 관련 지역 주민·관계전문가·관계부서 공론화 회의'를 개최하여 철거가 결정되었다.

1 공감하기

탐라문화광장 주변 공간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을 포함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중 팀별로 공감 인터뷰 주요 대상자를 6명씩 선정 후 공감 인터뷰를 위해 질문 브레인스토밍을 사용해 질문지를 작성했다. 인터뷰는 2인 1조(인터뷰 담당자, 기록자)로 진행했다.



- 1 <노랑무궁화팀>의 공감 인터뷰 대상자

 1. 0번방장 김병록 사장님 (주방장소 8명) 9
 2. 더 이원빌딩 앞 상주 사장님 (10명들 계층) 10
 3. 산지천의 할머니 10
 4. 이농마을 가게 (동동점) 10
 5. 복죽구 바닷 스카우터 (이영자) 13
 6. 원은 시장가게 주인 식당 대표님, 커다름 13
 7. 한정 미화원 13
 8. 공현 사장 (현현사) 13
 9. 금강도전문화관 (현현사) 11
 10. 타일러 (현현사) 11

2 <노랑무궁화팀>의 공감 인터뷰 질문지

스토리 만들기 감정 살피기

구체적 질문지 (why)

2 문제 정의하기

공감 인터뷰를 통해 취합한 정보를 공감지도로 만든 후 탐라문화광장 주변의 주민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핵심 문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깨달음을 발굴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핵심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 1,2 <공감지도 작성>

3 <지역 주민의 문제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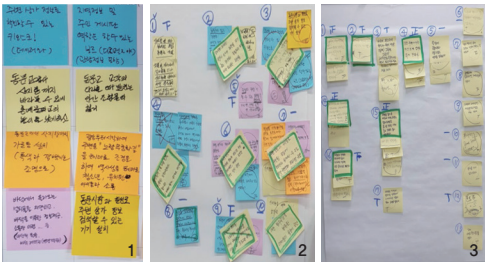
4 <오렌지팀의 핵심 문제 도출>

지역 주민의 문제 찾기

핵심 문제 도출

3 아이디어 내기

모든 팀원들은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팀 별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중복된 내용은 제거, 그룹핑을 통해 핵심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1 브레인스토밍 2·3 핵심 아이디어 선정

4 프로토타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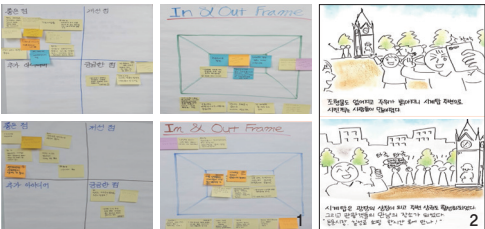
아이디어의 핵심 내용을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했다.



오렌지팀의 프로토타입

5 시험하기

공감 인터뷰에 참여한 지역 주민 6명 중 2명을 워크숍에 초대해 프로토타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할 점과 추가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반영, 두 팀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최종 결과물을 제작했다.



1 두 팀의 시험하기 및 In & Out 결과 2 최종 결과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형물의 철거 이후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센터는 문제 논의의 시작 단계부터 해결방법까지 사용자(주민)가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 개선 및 그를 넘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문제해결 경험의 「주민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공감하기-문제 정의하기-아이디어 내기-프로토타입만들기-시험하기 등 5단계로 진행되었다. 2개월여의 주민 참여 디자인 워크숍의 결과물은 향후 전문가들의 구현 작업을 거쳐 탐라문화광장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은 이 워크숍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과 탐라문화광장 공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도시의 미래 삶에 대해 묻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미래, 必 도시재생 시대'란 주제로 2019년 제주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과정은 제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도시재생 교육의 교양강좌이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도시재생 연구자, 국토교통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 강연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견해를 넓히고 미래 도시 삶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강연마다 100여명이 넘는 신청자를 모집하며 도시재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첫 번째 강좌는 국내와 유럽에서 활동하는 도시재생 전문가인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김정후 박사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도시의 미래'(3/22)라는 주제로 지역성을 살린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두 번째 강좌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3/27)이라는 주제로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정책보좌관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은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와 제주의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강연이었다. 세 번째 강연은 에어비앤비코리아 미디어정책총괄이자 도시건축전문작가인 음성원 작가의 '공유경제를 활용한 도시재생'(4/3)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시대의 필요나 공간적 수요에 적합하게 도시가 적응해 가는 방법으로 도시재생과 공유경제에 대해 깊은 메시지를 남겼다. 마지막 강좌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이자 도시기획 연구단체 어반트랜스포머의 대표인 김정빈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4/10)이라는 주제로 도시 내 잠재력과 가치를 발굴하고 도시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주체)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향해 있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출발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 지방정부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

상반기 제주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제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하반기에는 서귀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의 가능성

2019년 제주시·서귀포시 도시재생대학_공동이론과정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상향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지역의 도시재생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서귀포시 교육과정은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귀포시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제주시 교육과정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건입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공동이론과정은 도시, 건축, 경제,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초 이론 강의를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동호 센터장은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의 이해'(1강)라는 주제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LH도시재생지원기구 박미규 박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수립 방법'(2강)이라는 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참여 사례를 소개했으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는 '부동산 및 주거복지'(3강)이라는 주제로 제주 지역의 부동산 현안과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강의했다. 국토연구원 김태영 박사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전략'(4강)이라는 주제로 도시 내 잠재력과 가치를 발굴하고 도시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주체)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제주국제대학교 건축학과 양상호 교수는 '제주의 도시와 건축'(5강)이라는 주제로 제주의 도시적 특징 및 경쟁력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윤전우 사무국장은 '도시재생 뉴딜의 거버넌스'(6강)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공동이론과정 총 6강(12학점)중 5강(10학점)이상 수강 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심화교육과정인 도시재생대학 문제해결과정이 진행된다.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제주에서 뭉쳤다

2019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정기총회

지난 2월 22일,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김만덕 기념관에서 '2019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이하 전선험)' 정기총회가 열렸다. 먼 제주에서 개최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46개 센터에서 122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제주시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답사는 관덕정광장에서 집결하여 제주목관아를 시작으로 디자인공장 - 김영수도서관 - 칠성로 상점가 - 탐라문화광장 - 게왓 - 고씨주택 - 김만덕 기념관까지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전국의 센터 실무자들과 함께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제주시 원도심을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답사를 마치고, 김만덕 기념관에서 본격적으로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46개 센터를 하나하나 호명하며 참석기관과 성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총회가 시작되었다. 전선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익 센터장(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개회선언과 함께 2018년 추진사업 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 논의가 이어졌다. 작년 5월 목포에서 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 전선험는 총 4번의 운영위원회와 3번의 권역별 대표센터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

였다. 이 과정에서 전선험 내 교육위원회의 신규 구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근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나아가 시·도 공무원, 센터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교육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준비된 의제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친 후, 꽤 오랜 시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각자의 이슈에 대한 뜨거운 토론 열기로 준비된 시간을 훌쩍 넘겨 행사가 종료 되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균형발전... 공동체 지원사업 한 눈에

함께해서 더 좋은 2019 제주 공동체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제주도내 공동체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도내 공동체 지원을 수행하는 4개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된 '제주공동체지원네트워크'(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2019 제주 공동체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지난 2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상록회관) 1층 행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주민사업을 통합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설명회는 제주도내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홍보를 위하여 마을·지역주민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각 센터별로 올해 추진되는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및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이전하 前 전북 임실 치즈마을 운영위원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각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담당센터의 사업개요, 주요 지원내용, 향

후 일정 등이 안내 되었다. 사업 설명회 이후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문의는 행사장 내부에 센터별로 별도의 상담 테이블을 마련하여 개별 상담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하여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참가주민 A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합동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다"며, 연간 계획 수립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했다.

제주 · 대전 도시재생전문가, 원도심 활성화 위해 뭉치다

전국 최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 · 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5일 대전 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주 ·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광역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지역의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한 공동연구 및 사업지원 · 발굴 · 홍보, 인적교류 및 주민역량 강화 · 교류 등 두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여 긍정적 결



과를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제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문가와 타 지역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전문적이며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사업 실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부성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지역의 도시재생 전문가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역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라며 "전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인 만큼 양 시 · 도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종합적 지원업무와 함께 2016년부터 제주는 도시재생 일반지역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대전은 도시재생 일반지역 경제기반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 공동체 지원 중간지원조직 어벤져스 시너지효과 기대

제주공동체지원네트워크
MOU 체결



제주공동체지원네트워크(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2월 25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당에서 제주지역 공동체 지원 활성화를 위한 MOU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부성현 제주도

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모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강중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고태호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4개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마을 및 공동체와 관련한 정보와 인프라의 공동 활용으로 공동체 활

성화에 기여하고,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김학모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센터별 사업의 연계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모델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항 제8부두에서 진행되었다.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행사기간동안 전국 지방정부의 도시재생사례를 공유하고 민관과 산업의 교류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가 열린 인천항 제8부두는 산업화가 종료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던 축구장 2개 크기의 옛 곡물창고 공간으로, 행사 기간에는 행사장으로, 행사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상상플랫폼'이라는 문화예술·창업 공간으로 재탄생될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모델이라



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자체 136기관, 21개 공공기관, 민간기업 31개사 등 총 261기관이 80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는 거대 규모의 행사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 세미나, 토크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등과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존, 마켓존, 포토존, 활동가존 등이 설치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

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토크쇼에 참가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이튿날 열린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전세계의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행사에 참가한 센터 관계자는 "전국, 그리고 전세계의 도시재생사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능력시험 모의평가 낱말퍼즐 맞추기영역

빈칸에 들어갈 제주 도시재생과 관련된 단어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세로

- 1.제주시 원도심 마을 명칭, 오래된 성
- 3.일제강점기 대표적 수탈장소, 4.3유적지
- 4.의녀 김만덕이 장사를 했던 터를 이름
- 5.조선시대 큰길(한길)이 있었던 동네의 명칭
- 6.옛 제주읍성 서쪽으로 흐르던 천중에 하나

가로

- 2.옛 탐라국 성주가 거거했던 궁궐
- 4.조선시대 육지에서 출장 온 관리들이 묵던 객사가 있던 골목
- 5.제주시 원도심에 흐르는 가장 큰 천

①						⑥
②	③				⑤	
			④			

낱말 퍼즐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제주시 중앙로 14길 15-6 소식지 담당자 앞.
보낼 때는 상품 발송을 위해 보내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본 정보는 상품 발송에만 활용됩니다.

